

결혼이주여성의 안전의식과 안전실천에 관한 연구 : 김해시와 창원시를 중심으로

박신영 · 어용숙[†]
(부산대학교 · [†]동의대학교)

A Study on the Safety Awareness and Safety Practice of International Marriage Woman : Focused on Kimhae and Changwon City

Sin-Young PARK · Yong-Sook EO[†]
(Pusan National University · [†]Dong-Eui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afety awareness and safety practice of international marriage woman in Kimhae and Changwon city. We carried out a questionnaire survey that was targeted at 138 subjects.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with SPSS 21.0 statistical program. Analysis methods were t-test, one way ANOVA, Scheffe test, Per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afety awareness point was an average of 4.10 point which was higher level. Safety practice point was an over intermediate level of an average of 3.23 point. Second, safety awarenes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age, year of Korea residence, born Nation, whether or not Korean citizenship, monthly income, temper, satisfaction of marriage. Third, safety practice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housing, monthly income, health state, satisfaction of marriage. Fourth, safety Practice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home safety awareness, traffic safety awareness, fire safety awareness, and emergency care awareness. Therefore, a higher safety awareness results in having a very well safety practice. Fifth, International Marriage Women from Japan had the highest the level in the Safety Awareness and Safety Practice. From now on, two cities should have a major concern for safety education of fire and emergency care. And the safety education based on learning need analysis need to be done substantially.

Key words : International marriage woman, Safety, Safety awareness, Safety practice

I. 서론

다양한 일상생활 영역에서 안전은 우리의 건강 및 행복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국가와 도시의 브랜드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안전이란 부주의와 행동으로 인해 사고 및 자연재해와 같은

상황에서 재산손실을 최소화하는 상태를 의미하며(Worick, 1975), 안전사고는 고도의 과학기술이 발달된 국가일수록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2014. 4. 19)’와 ‘인천 영종대교 106중 연쇄추돌 사고(2015. 2.

[†] Corresponding author : 010-5113-6190, nursingeo@deu.ac.kr

11)'등의 안전사고는 안전수칙에 대한 기본과 원칙을 무시한 안전불감증에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편, 한국사회는 다양한 국가출신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다인종과 다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유입에 따른 변화추이는 크게 1980년대부터 통일교를 통해 입국한 일본 출신의 결혼이주여성, 한·중 수교(1992) 이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의 일환으로 입국한 중국·조선족 출신의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베트남·캄보디아 등 동남아 출신의 20대 초반이면서 저학력인 결혼이주여성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Park Sin-Young, 2014). 현재 21만 여명(2015. 1. 1 기준)으로 집계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은 경기 지역을 비롯하여 서울·경남·인천·경북·충남 지역 순으로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Ministry of the Interior, 2015).

그러나, 한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된 결혼이주여성들 대부분이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낮은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으로 사회취약계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으며, 낮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과 한국문화 이해에도 불구하고 단순노무직 등의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Koh Hye-Won et al., 2000; Kim Seung-Gwon et al., 2010). 결혼이주여성들이 처해 있는 사회·경제·문화적 어려움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가정·학교·사회·일터 등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Yun Ji-Yun(2013)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일반가정의 자녀들보다 높은 사고율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하더라도 어머니인 결혼이주여성들의 응급처치에 대한 정보와 교육경험의 부족으로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병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Kim Hye-Ja et al.(2012)은 최근 입국한 결혼이주여성 대부분이 한국보다 경제적

으로 낙후된 국가출신들이 많고, 비교적 낮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건강과 관련한 보건교육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 부모의 좋은 본보기를 기반으로 하는 부모의 가정교육은 자녀의 올바른 인성교육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러한 인성교육은 자녀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의식을 형성하고 강화시켜 안전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교육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된다.

한편, 한국사회는 세월호 사고 이후, 국가차원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경찰서·소방서 등을 중심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운전면허교실, 화재예방 및 응급처치교육(심폐소생술) 등의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러한 안전교육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교통 및 화재영역에 대한 안전지식을 습득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가정 등을 비롯한 일상생활 공간에서 안전을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다문화가정을 만들고 성숙한 다문화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전 하는데 있어서 안전의식 수준과 안전실천 수준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21세기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안전, 교통안전, 화재안전, 응급처치 등에 대한 안전의식과 안전실천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아동의 가정에서의 안전사고와 어머니의 응급처치를 다루고 있는 Yun Ji-Yun(2013) 연구 이외에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다만, 일반시민(Lee Hee-Taek, 2010; Park Sin-Young & Eo Yong-Sook, 2015), 대학생(Kim Sang-Youp, 2015; Yoon Young-Mi et al., 2014) 등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의식과 안전실천 연구는 이미 진행된 상태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안

전과 관련한 국내연구는 크게 임신 및 출산(Cha Seung-Eun & Kim Doo-Sub, 2008; Jeon Mi-Soon et al., 2011; Kim Hye-Ja, 2012; Park Hee-Ok et al., 2015)과 인권 및 폭력(Cheol Kyu-Cheol, 2011; Cho Jae-Dong, 2015; Hwang Jung-Mee, 2015) 등을 다룬 연구로 정리될 수 있다.

국외 연구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안전의식과 안전실천을 다룬 선행연구가 진행된 바가 없어 보인다. 다만, 도시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멕시코이민자 가정의 안전실천을 다룬 Diguseppi, C. et al. (2012)의 연구에서는 이들 가정 대부분이 저임금과 저학력자에 속하며, 대부분의 가정에 화재·낙상·중독·감전·사화재·대피위험·높은 수도물 수온 등으로 위험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탐지기와 옥조/샤워실 미끄럼방지 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화재 대피경로가 막혀 있고, 아이들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약품을 보관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멕시코이민자 가정들의 미국거주 기간보다는 주택건축연령과 유형에 기초한 가정안전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멕시코이민자 가정의 가정안전실천 영역에만 한정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국내연구와 마찬가지로 국외연구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과 폭력 등을 다룬 연구들(Hendrickson, S. G. et al, 2008; Nava, A. et al., 2014; Tsai, T. I. & Lee, S. Y., 2016; Yang, Y. M. et al., 2015)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수준과 안전실천 수준을 다룬 연구가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남 김해시와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안전의식과 안전실천의 정도는 어떠한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의식과 안전실천의 차이는 어떠한지, 안전의식과 안전실천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함으로써 향후 결혼이주

여성들의 안전의식과 안전실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교육프로그램개발을 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는 한국사회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결혼이주여성들의 급속한 증가로 빠르게 다문화사회로의 이행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안전의식과 안전실천의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들의 안전의식과 안전실천을 다룬 선행연구가 전무해 보이기 때문에 이들의 임신 및 출산임신 및 출산(Cha Seung-Eun & Kim Doo-Sub, 2008; Jeon Mi-Soon et al., 2011; Kim Hye-Ja, 2012; Park Hee-Ok et al., 2015)과 인권 및 폭력(Cheol Kyu-Cheol, 2011; Cho Jae-Dong, 2015; Hwang Jung-Mee, 2015)을 다룬 연구를 검토해 봄으로써 보다 폭넓은 차원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안전과 관련한 삶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비용부담, 복잡한 절차, 문화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의료진의 발언, 그리고 한국어 의사소통 문제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건강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TV를 통해 많이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ung Eui-Chul, 2013). Cha Seung-Eun & Kim Doo-Sub(2008) 연구에서는 베트남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은 일본과 중국출신 결혼이주여성들보다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베트남 출신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본이나 중국출신보다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베트남출신의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출산이 우울감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중국이나 일본출신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경제활동이 우울감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드러났는데, 이를 통해 출신국가별로

우울감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ark Hee-Ok et al.(2015)이 중국, 베트남을 비롯한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들은 신생아 안전관리 및 응급대처법, 예방접종, 건강문제관리, 신생아 정상발달과정, 신생아 관리법 등 신생아의 발달 과정 이해와 건강문제 해결에 대한 교육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임에 대한 교육적 요구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 다른 출신의 결혼이주여성들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Kim Hye-Ja et al.(2012)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월경지식은 필리핀이나 중국보다는 베트남이, 현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보다는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주관적 건강상태의 지각이 고통보다는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했을 때 더 높게 나타났으며, 피임지식은 중출보다는 고졸이, 중국출신보다는 베트남출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Jeon Mi-Soon et al.(2011)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임신 및 출산지식은 평균 3.35점(5점 만점)으로 보통수준으로 영유아 양육지식은 평균 3.16점으로 모두 보통 수준임을 알 수 있었으며, 임신 및 출산지식은 자녀가 있는 경우, 이전의 임신 및 출산경험을 통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이주여성들은 선주민 여성들에 비해 정서적 폭력보다 경제적 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었는데, 이는 가정폭력은 단지 부부간 친밀성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불안정과 빈곤위험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Hwang Jung-Mee, 2015). 결혼이주여성들이 국제결혼 이후,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이 지원되어야 하고, 결혼이주여성의 피해보호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한국국적 취득자를 경찰인력으로 채용하여 경찰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결혼중개업자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파악하여 결혼

이주여성의 피해방지와 인권침해 보호를 위한 경찰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Cheol Kyu-Cheol, 2011).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한국사회의 비주류이자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과 인권 및 폭력을 다룬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사회의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의식과 안전실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므로 이에 연구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경남 김해시와 창원시의 행정구역 ‘동’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안전의식과 안전실천의 정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의식과 안전실천의 차이, 안전의식과 안전실천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경남은 전국에서 경기, 서울, 다음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수가 현재 14,776여 명(2015. 1. 1 기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경남지역의 창원시에 3,810여 명, 김해시에 2,290여 명 순으로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행정자치부 통계자료, 2015), 서로 인접해 있는 김해시와 창원시는 중소기업이 많아 외국인노동자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도시로 이행되고 있는 김해시와 창원시에서 다문화가정을 형성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안전의식과 안전실천을 조사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수집은 2016년 1~2월, 두 달 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표적모집단은 경남 김해시와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지만 자료수집은 무작위로 표집하지 못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의 설문지 협조가 가능한 기관을 임의로 표집하여 설문조사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자발적으로 참여여부를 서면동의한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150부를 배부하여 138부가 회수되어 이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이 연령은 ‘40세 이하’가 42.6%로 가장 많았다. 교육정도는 ‘중졸 이하’가 49.3%이었고, ‘고졸 이상’이 50.7%이었다.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은 ‘11년 이상’이 65.0%, ‘10이하’가 35.0%이었다. 출신국은 ‘일본’이 52.2%로 과반수를 차지했고, ‘중국’이 10.9%, ‘베트남·필리핀’이 14.5%, ‘기타 나라’가 22.5%이었다. 한국국적이 없는 경우가 69.6%이었으며, 자녀수는 ‘1-2명’이 60.1%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없음’이 57.2%이었고,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54.3%이었다. 월수입은 ‘151-300만원 이하’가 45.7%로 가장 많으며, ‘150만원 이하’가 29.1%로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재난 및 사고경험은 있는 경우가 21.7%로 없는 경우인 78.3%보다 매우 적었다. 안전교육 경험은 21.7%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는 78.3%이었다. 성격은 ‘조용하고 말이 없음’이 12.3%이었고, ‘보통’이 64.5%로 과반수를 차지했고, ‘활발하고 명랑함’이 23.3%이었다. 성질은 ‘급함’이 15.2%, ‘보통’이 70.3%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보통’이 68.8%로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건강함’이 26.1%로 나타났다. 결혼생활 만족도는 ‘보통’이 48.6%이었고, ‘만족함’이 44.9%, ‘만족하지 않음’이 6.5%로 대체적으로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조사도구는 <Table 2>와 같다. 설문지 문항은 개인의 일반적 특성, 안전의식, 안전실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38)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N | % |
|--------------------------------|-----------------------|-----|------|
| Age | ≤ 40 | 58 | 42.6 |
| | 41-50 | 53 | 37.5 |
| | ≥ 51 | 27 | 19.9 |
| Education | ≤ Middle school | 67 | 49.3 |
| | ≥ High school | 69 | 50.7 |
| Duration of Korean stay | ≤ 10 | 49 | 35.0 |
| | ≥ 11 | 89 | 65.0 |
| Birth place | Japan | 75 | 52.2 |
| | China | 15 | 10.9 |
| | Vietnam · Philippines | 20 | 14.5 |
| | Others | 28 | 22.4 |
| South Korean citizenship | No | 96 | 69.6 |
| | Yes | 42 | 30.4 |
| Number of children | No | 6 | 4.3 |
| | 1-2 | 83 | 60.1 |
| | ≥ 3 | 49 | 35.5 |
| Job | No | 79 | 57.2 |
| | Yes | 59 | 42.8 |
| Housing | Apartment | 75 | 54.3 |
| | Detached house | 63 | 45.7 |
| Monthly income (Manwon) | ≤ 150 | 40 | 29.0 |
| | 151-300 | 63 | 45.7 |
| | ≥ 301 | 35 | 25.4 |
| Experience of safety accident | No | 108 | 78.3 |
| | Yes | 30 | 21.7 |
| Experience of safety education | No | 108 | 78.3 |
| | Yes | 30 | 21.7 |
| Personality | Calm | 17 | 12.3 |
| | Moderate | 89 | 64.5 |
| | Active | 32 | 23.3 |
| Character | Urgent | 21 | 15.2 |
| | Moderate | 97 | 70.3 |
| | Not urgent | 20 | 14.5 |
| Health state | Not healthy | 7 | 5.1 |
| | Moderate | 95 | 68.8 |
| | Healthy | 36 | 26.1 |
| Satisfaction of marriage | Not satisfy | 9 | 6.5 |
| | Moderate | 67 | 48.6 |
| | Satisfy | 62 | 44.9 |

먼저 개인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학력, 한국거주 기간, 출신국, 한국국적 유무, 자녀수, 직업유무, 주거형태, 월수입, 성격, 성질, 건강상태, 결혼생활 만족도 등의 일반적 특성 13문항, 안전사고 경험 유무 1문항, 안전교육경험 유무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도구인 안전의식과 안전실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for Safety Awareness and Safety Practice Behavior

| Instruments | | Item Number | Number of items | Cronbach Alpha for this study | |
|--------------------------|-----------------------------|------------------------------|-------------------------|-------------------------------|-----|
| Safety Awareness | Home safety | Life Safety | 1, 2, 3, 4, 7, 8, 9, 10 | .83 | |
| | | Facility Safety | 5, 6, 11, 12, 13 | .79 | |
| | | Subtotal | 13 | .88 | |
| | Traffic safety | Pedestrian Safety | 1, 2, 3, 4 | 4 | .80 |
| | | Bicycle Safety | 5, 6, 10, 11, 12 | 5 | .91 |
| | | Public Transport Safety | 7, 8, 9 | 3 | .87 |
| | | Subtotal | 11 | .94 | |
| | Fire safety | Fire Prevention | 1, 2, 3, 4 | 4 | .88 |
| | | Action Tips | 5, 6, 7, 8 | 4 | .88 |
| | | Subtotal | 8 | .93 | |
| | Emergency Care | Emergency General Principles | 1, 2, 3, 4 | 4 | .91 |
| | | Emergency Action Tips | 5, 6, 7, 8, 9, 10 | 6 | .88 |
| | | Subtotal | 10 | .91 | |
| Total | | | 42 | .97 | |
| Safety Practice Behavior | Environmental Safety Action | 1, 13, 14, 15 | 4 | .68 | |
| | Fire Prevention Action | 3, 4, 5, 6, 7 | 5 | .85 | |
| | Life Safety Action | 16, 17, 18, 19 | 4 | .77 | |
| | Facility Safety Behavior | 8, 9, 10, 11, 12 | 5 | .71 | |
| | Total | | | 18 | .89 |

가. 안전의식

안전의식이란 일상생활에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지는 안전에 대한 인지도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항목으로 가정안전, 교통안전, 화재안전, 응급처치안전 분야에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거나 실수를 범하는 행동을 하였을 때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안전의식을 의미한다(Lee Hee-Taek, 2010).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안전의식 측정도구는 Kim Hye-Won(2002)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중학생을 대상

으로 개발된 도구이지만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적용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Park Sin-Young & Eo Yong-Sook, 2015) 결혼이주여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쉬운 용어로 수정하였으며, 용어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삽입하기도 하였다. 문항수정 후, 결혼이주여성 2명과 안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전문가 2명에게 본 설문도구가 결혼이주여성의 안전의식과 안전실천을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항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이후 5명의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이해도를 체크하였다.

안전의식 도구는 4개의 하부요인, 총 43문항으로 구성되는데, 세부 하부요인은 가정안전의식 13문항, 교통안전의식 12문항, 화재안전의식 8문항, 응급처치안전의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Hye-Won(2002)의 연구에서의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 α 는 가정안전의식 .76, 교통안전의식 .83, 화재안전의식 .72, 응급처치안전의식 .7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 α 는 가정안전의식 .88, 교통안전의식 .94, 화재안전의식 .93, 응급처치안전의식 .91로 나타났다.

나. 안전실천

안전실천은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와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Worick, 1975). 본 연구에서 안전실천 도구는 Kim Hye-Won(2002)이 개발한 도구를 Lee Hee-Taek(2010)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원도구는 시민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고,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우리집의 창가나 베란다에는 어린 아이가 딛고 올라설 만한 가구나 물건이 있다’문항은 신뢰도가 낮아 삭제하였다.

안전실천은 4개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다. 안전실천의 하부요인을 보면, 환경안전실천에는 집의 모든 계단과 베란다에 난간 설치, 늘어서는 식탁보 사용하지 않는 것, 난로·다리미·커피포트 등 화상원인이 되는 것에 대한 주의, 응급처치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내용을 포함한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재예방안전실천은 현관문의 도어체크 설치, 집에 가스누설 탐지기 설치, 연기탐지기 설치, 집에 소화기 잘 보이는 곳에 비치,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의 안전덮개 씌우기를 포함한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안전실천은 아이나 치매어른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하지 않는 것,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가전제품을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 자동차 이용시 안전벨트 착용, 닳아 벗겨진 전기코드와 기구의 교체가 포함된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끝으로, 시설안전실천은 욕실의 미끄럼방지용 매트, 유독성 물질의 안전한 곳 보관, 보호용 옷이나 야광밴드 착용, 끈이나 봉지를 어린이와 치매어른 근처에 두지 않는 것, 안전성 있는 의자 사용을 포함한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실천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Lee Hee-Taek(2010) 연구에서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 α 는 환경안전실천 .72, 화재예방안전실천 .79, 생활안전실천 .80, 시설안전실천 .8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 α 는 환경안전실천 .68, 화재예방안전실천 .85, 생활안전실천 .77, 시설안전실천 .71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자료는 SPSS PC 21.0 program을 이용하였고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들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둘째, 결혼이주여성들의 안전의식 즉, 가정안전의식, 교통안전의식, 화재안전의식, 응급처치안

전의식과 안전실천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셋째, 결혼이주여성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실천 정도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넷째, 결혼이주여성들의 안전의식과 안전실천 정도의 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결혼이주여성들의 안전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선행회귀분석로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실천 정도

결혼이주여성의 안전의식과 안전실천의 정도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Level of Safety Awareness and Safety Practice Behavior (N=138)

| Variables | | M | SD | |
|--------------------------|--------------------------|------------------------------|------|------|
| Safety Awareness | Home Safety | Life Safety | 3.74 | 0.61 |
| | | Facility Safety | 3.93 | 0.67 |
| | | Subtotal | 3.84 | 0.59 |
| | Traffic Safety | Pedestrian Safety | 4.21 | 0.61 |
| | | Bicycle Safety | 4.08 | 0.71 |
| | | Public Transport Safety | 4.23 | 0.76 |
| | | Subtotal | 4.17 | 0.64 |
| | Fire Safety | Fire Prevention | 4.14 | 0.72 |
| | | Action Tips | 4.08 | 0.78 |
| | | Subtotal | 4.11 | 0.71 |
| | Emergency Care | Emergency General Principles | 4.16 | 0.70 |
| | | Emergency Action Tips | 3.71 | 0.80 |
| | | Subtotal | 3.93 | 0.68 |
| | Total | | 4.10 | 0.58 |
| | Safety Practice Behavior | Environmental Safety Action | 3.45 | 0.76 |
| Fire Prevention Action | | 3.00 | 1.02 | |
| Life Safety Action | | 3.41 | 0.76 | |
| Facility Safety Behavior | | 3.09 | 0.73 | |
| Total | | 3.23 | 0.68 | |

연구대상자의 안전의식 정도는 5점 만점에 전체 평균 4.10점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 중 교통안전의식이 4.1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화재안전의식 4.11점, 응급처치안전의식 3.93점, 가정안전의식 3.84점 순이었다. 또한 안전실천 정도는 전체 평균 3.23점으로 보통 이상이었으며, 하부요인별로는 환경안전실천 3.45점, 생활안전실천 3.41점, 시설안전실천 3.09점, 화재예방안전실천 3.00점 순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의식과 안전실천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체 안전의식은 <Table 4>와 같이 연령, 한국거주 기간, 출신국, 한국국적 유무, 월수입, 성질, 결혼생활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은 '40세 이하'가 '41-50세 이하'와 '51세 이상'보다 안전의식이 낮았으며($F=3.90, p=.02$), 한국거주 기간은 '10년 이하'가 '11년 이상'보다 안전의식이 낮았다($t=-2.12, p=.04$). 출신국은 '기타 나라'가 '일본'에 비해 안전의식이 낮았으며($F=11.75, p<.001$), 한국국적이 '있음'이 '없음'보다 안전의식이 낮았다($t=2.94, p=.01$). 월수입은 '150만원 이하'가 '301만원 이상'보다 안전의식이 낮았으며($F=5.55, p=.01$), 성질이 '보통'이 '급함'보다 안전의식이 낮았다($F=3.94, p=.02$). 결혼생활 만족도는 '보통'이 가장 안전의식이 낮았으며, '만족하지 않음'이 가장 안전의식이 높았다($F=3.40, p=.04$).

안전의식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정안전의식은 한국거주 기간, 출신국, 한국국적 유무, 자녀수, 월수입, 성질, 결혼생활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거주기간은 '10년 이하'가 '11년 이상'보다 가정안전의식이 낮았다($t=-2.09, p=.04$). 출신국은 '기타 나라'가 '일본'에 비해 가정안전의식이 낮았으며($F=8.08, p<.001$), 한국국적이 '있음'이 '없음'보다 가정안전의식이 낮았다($t=2.96, p=.01$). 자녀수는 '1-2명'이 가장 가정안전의식이

낮았으며($t=2.99, p=.05$), 월수입이 '150만원 이하'가 '301만원 이상'보다 가정안전의식이 낮았으며($F=4.40, p=.01$), 성질은 '보통'이 '급함'보다 가정안전의식이 낮았다($F=3.37, p=.04$). 결혼생활 만족도는 '보통'이 '만족하지 않음'과 '만족함'보다 가정안전의식이 낮았다($F=8.40, p<.001$).

교통안전의식은 연령, 한국거주 기간, 출신국, 한국국적 유무, 주거형태, 월수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연령은 '40세 이하'가 '51세 이상'보다 교통안전의식이 낮았으며($F=4.35, p=.02$), 한국거주 기간은 '10년 이하'가 '11년 이상'보다 교통안전의식이 낮았다($t=-1.98, p=.05$). 출신국은 '기타 나라'가 '일본'에 비해 교통안전의식이 낮았으며($F=12.31, p<.001$), 한국국적이 '있음'이 '없음'보다 교통안전의식이 낮았다($t=2.53, p=.01$).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교통안전의식이 낮았으며($t=2.45, p=.02$), 월수입이 '150만원 이하'가 '301만원 이상'보다 교통안전의식이 낮았다($F=7.79, p=.001$).

화재안전의식은 연령, 출신국, 한국국적 유무, 월수입, 성격, 성질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살펴보면, 연령은 '40세 이하'가 '41-50세'보다 화재안전의식이 낮았으며($F=4.64, p=.01$), 출신국은 '기타 나라'가 '일본'에 비해 화재안전의식이 낮았으며($F=7.99, p<.001$), 한국국적이 '있음'이 '없음'보다 화재안전의식이 낮았다($t=2.95, p=.01$). 월수입이 '150만원 이하'가 '301만원 이상'보다 화재안전의식이 낮았으며($F=4.58, p=.012$), 성격은 '조용하고 말이 없음'이 '활발하고 명랑함'보다 화재안전의식이 낮았고($F=3.52, p=.03$), 성질은 '보통'이 '급함'보다 화재안전의식이 낮았다($F=3.61, p=.03$).

응급처치안전의식은 출신국, 한국국적 유무, 건강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출신국은 '중국'과 '기타 나라'가 '일본'에 비해 응급처치안전의식이 낮았으며($F=9.20, p<.001$),

<Table 4> Safety Aware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38)

| Characteristics | | Total | | Home safety | | Traffic safety | | Fire safety | | Emergency safety | |
|--------------------------------|----------------------------------|-----------|------------------|-------------|-----------------|----------------|------------------|-------------|-----------------|------------------|-----------------|
| | | M(SD) | t or F(p) | M(SD) | t or F(p) | M(SD) | t or F(p) | M(SD) | t or F(p) | M(SD) | t or F(p) |
| Age | ≤40 ^a | 3.85(.61) | 3.90 (.02) | 3.73(.58) | 1.52 (.22) | 3.99(.66) | 4.35 (.02) | 3.90(.77) | 4.64 (.01) | 3.79(.72) | 2.75 (.07) |
| | 41-50 ^b | 4.13(.61) | | 3.91(.68) | | 4.26(.64) | | 4.28(.67) | | 4.09(.68) | |
| | ≥51 ^c | 4.13(.41) | | 3.92(.40) | | 4.37(.47) | | 4.24(.55) | | 3.98(.55) | |
| | Scheffe test | | a<b, c | | | | a<c | | a<b | | |
| Education | ≤Middle school | 3.99(.58) | -0.62 (.53) | 3.84(.64) | -0.03 (.98) | 4.12(.63) | -1.02 (.31) | 4.11(.71) | -0.15 (.88) | 3.88(.66) | -1.00 (.32) |
| | ≥High school | 4.05(.59) | | 3.84(.54) | | 4.23(.63) | | 4.13(.71) | | 4.00(.70) | |
| Duration of Korean stay | ≤10 | 3.87(.60) | -2.12 (.04) | 3.70(.57) | -2.09 (.04) | 4.03(.70) | -1.98 (.05) | 3.94(.70) | -2.07 (.04) | 3.82(.66) | -1.43 (.16) |
| | ≥11 | 4.09(.56) | | 3.92(.59) | | 4.25(.59) | | 4.20(.70) | | 4.00(.65) | |
| Birth place | Japan ^a | 4.22(.48) | 11.75 (<.001) | 4.03(.49) | 8.08 (<.001) | 4.39(.53) | 12.31 (<.001) | 4.34(.59) | 7.99 (<.001) | 4.13(.61) | 9.20 (<.001) |
| | China ^b | 3.82(.63) | | 3.61(.60) | | 4.16(.72) | | 3.93(.75) | | 3.60(.75) | |
| | Vietnam/Philippines ^c | 4.09(.46) | | 3.89(.53) | | 4.23(.47) | | 4.12(.67) | | 4.14(.58) | |
| | Others ^d | 3.58(.60) | | 3.84(.59) | | 3.65(.62) | | 3.66(.75) | | 3.51(.64) | |
| | Scheffe test | | a>d | | a>d | | a>d | | a>d | | a>b, d and c>a |
| South Korean citizenship | No | 4.11(.53) | 2.94 (.01) | 3.94(.53) | 2.96 (.01) | 4.26(.60) | 2.53 (.01) | 4.22(.63) | 2.95 (.01) | 4.01(.64) | 2.02 (.05) |
| | Yes | 3.80(.63) | | 3.62(.68) | | 3.97(.67) | | 3.85(.80) | | 3.76(.75) | |
| Number of children | No | 4.08(.59) | 2.37 (.10) | 3.93(.70) | 2.99 (.05) | 4.19(.74) | 2.01 (.14) | 4.21(.61) | 1.54 (.22) | 4.00(.57) | 1.34 (.27) |
| | 1-2 | 3.92(.60) | | 3.74(.61) | | 4.09(.66) | | 4.02(.74) | | 3.86(.70) | |
| | ≥3 | 4.15(.53) | | 3.99(.51) | | 4.32(.57) | | 4.24(.64) | | 4.06(.65) | |
| Job | No | 3.96(.60) | -1.23 (.22) | 3.86(.58) | 0.57 (.57) | 4.12(.65) | -1.16 (.25) | 4.02(.70) | -1.72 (.09) | 3.84(.70) | -1.85 (.07) |
| | Yes | 4.08(.55) | | 3.81(.61) | | 4.25(.61) | | 4.23(.70) | | 4.06(.63) | |
| Housing | Apartment | 4.07(.50) | 1.22 (.21) | 3.88(.50) | 0.80 (.43) | 4.30(.56) | 2.45 (.02) | 4.16(.63) | 0.90 (.37) | 3.95(.60) | 0.33 (.74) |
| | Detached house | 3.95(.67) | | 3.79(.68) | | 4.03(.70) | | 4.05(.79) | | 3.91(.76) | |
| Monthly income (Manwon) | ≤150 ^a | 3.78(.71) | 5.55 (.01) | 3.62(.76) | 4.40 (.01) | 3.87(.76) | 7.79 (.001) | 3.86(.83) | 4.58 (.012) | 3.78(.72) | 2.00 (.14) |
| | 151-300 ^b | 4.06(.46) | | 3.89(.44) | | 4.25(.51) | | 4.14(.64) | | 3.95(.65) | |
| | ≥301 ^c | 4.20(.54) | | 4.00(.56) | | 4.40(.58) | | 4.34(.60) | | 4.09(.66) | |
| | Scheffe test | | a<c | | a<c | | a<c | | a<c | | |
| Experience of safety accident | No | 4.05(.59) | 1.34 (.18) | 3.86(.61) | 0.75 (.45) | 4.19(.65) | 0.53 (.59) | 4.16(.69) | 1.55 (.12) | 3.99(.67) | 1.83 (.07) |
| | Yes | 3.89(.56) | | 3.77(.53) | | 4.12(.59) | | 3.93(.75) | | 3.74(.67) | |
| Experience of safety education | No | 4.03(.55) | 0.63 (.53) | 3.87(.55) | 1.32 (.19) | 4.19(.61) | 0.62 (.54) | 4.14(.67) | 0.81 (.42) | 3.92(.67) | -0.42 (.68) |
| | Yes | 3.96(.69) | | 3.71(.73) | | 4.11(.73) | | 4.02(.84) | | 3.98(.73) | |
| Personality | Calm ^a | 3.92(.51) | 2.83 (.06) | 3.86(.53) | 2.07 (.13) | 4.06(.70) | 1.56 (.21) | 3.99(.61) | 3.52 (.03) | 3.75(.57) | 2.41 (.09) |
| | Moderate ^b | 3.96(.58) | | 3.77(.61) | | 4.14(.62) | | 4.03(.71) | | 3.89(.67) | |
| | Active ^c | 4.23(.58) | | 4.02(.56) | | 4.34(.64) | | 4.39(.69) | | 4.15(.73) | |
| | Scheffe test | | | | | | | | a<c | | |
| Character | Urgent ^a | 4.29(.48) | 3.94 (.02) | 4.10(.48) | 3.37 (.04) | 4.41(.54) | 2.68 (.07) | 4.42(.59) | 3.61 (.03) | 4.22(.57) | 2.80 (.06) |
| | Moderate ^b | 3.93(.60) | | 3.76(.63) | | 4.10(.66) | | 4.01(.71) | | 3.85(.70) | |
| | Not urgent ^c | 4.13(.48) | | 3.95(.38) | | 4.31(.49) | | 4.26(.72) | | 4.02(.63) | |
| | Scheffe test | | a>b | | a>b | | | | a>b | | |
| Health state | Not healthy ^a | 4.21(.49) | 2.07 (.13) | 4.01(.51) | 0.58 (.56) | 4.33(.57) | 2.35 (.10) | 4.32(.67) | 1.23 (.30) | 4.15(.52) | 3.10 (.05) |
| | Moderate ^b | 3.95(.58) | | 3.81(.62) | | 4.10(.65) | | 4.05(.71) | | 3.84(.64) | |
| | Healthy ^c | 4.15(.58) | | 3.89(.53) | | 4.35(.60) | | 4.23(.71) | | 4.14(.75) | |
| Satisfaction of marriage | Not satisfy ^a | 4.37(.53) | 3.40 (.04) | 4.28(.52) | 8.40 (<.001) | 4.40(.55) | 1.75 (.18) | 4.50(.61) | 2.13 (.12) | 4.28(.64) | 1.52 (.22) |
| | Moderate ^b | 3.90(.62) | | 3.65(.63) | | 4.08(.71) | | 4.01(.74) | | 3.87(.69) | |
| | Satisfy ^c | 4.08(.52) | | 3.98(.48) | | 4.25(.55) | | 4.16(.67) | | 3.95(.66) | |
| | Scheffe test | | | | a, c<b | | | | | | |

한국국적이 '있음'이 '없음'보다 응급처치안전의식이 낮았다($t=2.02, p=.05$). 건강상태는 '보통'이 응급처치안전의식이 가장 낮았다($F=3.10, p=.05$).

5>와 같이 주거형태, 월수입, 건강상태, 결혼생활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실천 차이는 <Table

<Table 5> Safety Practice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38)

| Characteristics | | Total | | Environmental Safety Action | | Fire Prevention Action | | Life Safety Action | | Facility Safety Behavior | |
|--------------------------------|----------------------------------|-----------|----------------|-----------------------------|---------------|------------------------|--------------|--------------------|--------------|--------------------------|---------------|
| | | M(SD) | t or F(p) | M(SD) | t or F(p) | M(SD) | t or F(p) | M(SD) | t or F(p) | M(SD) | t or F(p) |
| Age | ≤40 | 3.22(.74) | | 3.35(.74) | | 3.11(1.00) | | 3.38(.81) | | 3.03(.77) | |
| | 41-50 | 3.24(.70) | 0.03 (.97) | 3.49(.81) | 0.68 (.51) | 2.91(1.07) | 0.54 (.58) | 3.40(.83) | 0.16 (.85) | 3.15(.78) | 0.43 (.65) |
| | ≥51 | 3.25(.51) | | 3.53(.70) | | 2.95(1.02) | | 3.48(.56) | | 3.04(.57) | |
| Education | ≤Middle school | 3.14(.63) | -1.76 (.08) | 3.35(.69) | -1.49 (.14) | 2.84(.99) | -1.94 (.05) | 3.34(.74) | -1.17 (.25) | 3.02(.70) | -1.01 (.32) |
| | ≥High school | 3.33(.71) | | 3.54(.81) | | 3.18(1.04) | | 3.49(.79) | | 3.15(.77) | |
| Duration of Korean stay | ≤10 | 3.22(.64) | -0.17 (.87) | 3.38(.68) | -0.73 (.47) | 3.01(.88) | 0.16 (.87) | 3.43(.71) | 0.26 (.79) | 3.05(.69) | -0.36 (.72) |
| | ≥11 | 3.24(.70) | | 3.48(.81) | | 2.99(1.10) | | 3.40(.80) | | 3.10(.76) | |
| Birth place | Japan ^a | 3.31(.66) | | 3.61(.72) | | 2.98(1.11) | | 3.48(.76) | | 3.16(.74) | |
| | China ^b | 3.25(.81) | 0.76 (.52) | 3.43(.86) | 2.93 (.04) | 2.96(.82) | 0.06 (.98) | 3.35(.92) | 0.49 (.69) | 3.25(.92) | 1.46 (.23) |
| | Vietnam/Philippines ^c | 3.13(.58) | | 3.29(.67) | | 3.09(.76) | | 3.30(.68) | | 2.86(.65) | |
| | Others ^d | 3.12(.71) | | 3.17(.80) | | 3.00(1.07) | | 3.33(.77) | | 2.97(.65) | |
| Scheffe test | | | | a>d | | | | | | | |
| South Korean citizenship | No | 3.27(.07) | 1.04 (.30) | 3.52(.72) | 1.72 (.09) | 3.01(1.05) | 0.18 (.86) | 3.43(.76) | 0.57 (.57) | 3.14(.73) | 1.21 (.23) |
| | Yes | 3.14(.11) | | 3.28(.83) | | 2.98(.96) | | 3.35(.77) | | 2.97(.74) | |
| Number of children | No | 3.54(.63) | | 3.67(.68) | | 3.17(1.48) | | 4.04(.53) | | 3.27(.59) | |
| | 1-2 | 3.18(.70) | 1.02 (.36) | 3.38(.80) | 0.90 (.41) | 2.95(.97) | 0.28 (.76) | 3.36(.78) | 2.30 (.10) | 3.04(.72) | 0.50 (.61) |
| | ≥3 | 3.29(.64) | | 3.54(.71) | | 3.07(1.06) | | 3.42(.74) | | 3.14(.77) | |
| Job | No | 3.19(.80) | 0.58 (.57) | 3.37(.93) | 0.99 (.33) | 3.05(1.07) | -0.47 (.64) | 3.36(.84) | 0.63 (.53) | 3.00(.85) | 1.09 (.28) |
| | Yes | 3.27(.58) | | 3.51(.61) | | 2.96(.99) | | 3.44(.71) | | 3.15(.62) | |
| Housing | Apartment | 3.40(.63) | 3.24 (<.001) | 3.65(.69) | 3.48 (<.001) | 3.29(.94) | 3.82 (<.001) | 3.43(.76) | 0.43 (.67) | 3.23(.69) | 2.62 (.01) |
| | Detached house | 3.04(.69) | | 3.21(.79) | | 2.65(1.01) | | 3.38(.77) | | 2.91(.74) | |
| Monthly income (Manwon) | ≤150 ^a | 2.92(.62) | | 3.04(.77) | | 2.64(.94) | | 3.15(.78) | | 2.86(.68) | |
| | 151-300 ^b | 3.21(.56) | 12.79 (<.001) | 3.46(.66) | 13.93 (<.001) | 2.98(.93) | 6.38 (<.001) | 3.40(.66) | 5.41 (.01) | 2.98(.57) | 10.61 (<.001) |
| | ≥301 ^c | 3.65(.73) | | 3.89(.68) | | 3.45(1.11) | | 3.71(.83) | | 3.54(.86) | |
| | Scheffe test | a, b<c | | a<b, c and b<c | | a<c | | a<c | | a, b<c | |
| Experience of safety accident | No | 3.23(.67) | -0.30 (.77) | 3.57(.77) | -0.97 (.34) | 3.00(1.11) | 0.00 (1.00) | 3.43(.77) | -0.14 (.89) | 3.08(.74) | 0.05 (.96) |
| | Yes | 3.27(.72) | | 3.41(.76) | | 3.00(1.00) | | 3.40(.77) | | 3.09(.73) | |
| Experience of safety education | No | 3.32(.68) | -0.74 (.46) | 3.41(.83) | 0.32 (.75) | 3.09(.98) | -0.56 (.57) | 3.56(.80) | -1.22 (0.22) | 3.21(.72) | -1.03 (.31) |
| | Yes | 3.21(.68) | | 3.46(.75) | | 2.97(1.04) | | 3.37(.75) | | 3.05(.73) | |
| Personality | Calm ^a | 3.21(.70) | | 3.34(.87) | | 3.13(1.07) | | 3.31(.75) | | 3.07(.80) | |
| | Moderate ^b | 3.19(.66) | 0.72 (.49) | 3.43(.72) | 0.57 (.57) | 2.96(1.03) | 0.23 (.79) | 3.38(.76) | 0.55 (.58) | 3.00(.68) | 2.09 (.13) |
| | Active ^c | 3.36(.72) | | 3.56(.84) | | 3.04(1.01) | | 3.52(.80) | | 3.31(.80) | |
| Character | Urgent ^a | 3.25(.70) | | 3.57(.84) | | 3.00(1.08) | | 3.30(.70) | | 3.14(.71) | |
| | Moderate ^b | 3.21(.67) | 0.19 (.83) | 3.39(.75) | 1.05 (.35) | 2.95(.99) | 0.66 (.52) | 3.44(.77) | 0.29 (.75) | 3.09(.75) | 0.14 (.87) |
| | Not urgent ^c | 3.31(.73) | | 3.61(.73) | | 3.24(1.11) | | 3.39(.82) | | 3.02(.70) | |
| Health state | Not healthy ^a | 2.72(.57) | | 2.96(.91) | | 2.43(1.28) | | 2.96(.86) | | 2.51(.82) | |
| | Moderate ^b | 3.16(.61) | 6.58 (<.001) | 3.41(.73) | 2.93 (.06) | 2.91(.96) | 3.81 (.02) | 3.29(.69) | 7.64 (<.001) | 3.04(.66) | 4.43 (.01) |
| | Healthy ^c | 3.53(.76) | | 3.65(.77) | | 3.36(1.06) | | 3.80(.81) | | 3.32(.83) | |
| Scheffe test | | a, b<c | | | | a<c | | a, b<c | | a<c | |
| Satisfaction of marriage | Not satisfy ^a | 2.54(.78) | | 2.78(1.10) | | 2.11(1.03) | | 2.92(1.19) | | 2.36(.93) | |
| | Moderate ^b | 3.11(.62) | 11.21 (<.001) | 3.33(.77) | 7.67 (<.001) | 2.82(.88) | 8.21 (<.001) | 3.26(.69) | 6.14 (<.001) | 3.01(.64) | 7.34 (<.001) |
| | Satisfy ^c | 3.47(.62) | | 3.67(.61) | | 3.32(1.05) | | 3.63(.71) | | 3.27(.73) | |
| | Scheffe test | | a<b, c and b<c | | a, b<c | | a, b<c | | a, b<c | | a<b, c |

주거형태는 아파트에 사는 경우가 단독주택 등 아파트에 살지 않는 경우보다 환경안전실천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3.48, <.001$). 월수입은 '301만원 이상'이 '151-300만원'과 '150만원 이하'보다 안전실천이 높았다($F=12.79, p<.001$). 건강상태는 '건강함'이 '건강하지 않음'과 '보통'보다 안전실천이 높았다($F=6.58, p<.001$). 결혼생활 만족도는 '만족함'과 '보통'이 '만족하지 않음'보다 안전실천이 높았으며, '만족함'이 '보통'보다 안전실천이 높았다($F=11.21, p<.001$).

안전실천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환경안전실천은 출신국, 주거형태, 월수입, 결혼생활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출신국은 일본이 기타 나라보다 환경안전실천이 높았다($F=2.93, p=.04$).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단독주택보다 환경안전실천이 높았으며($t=3.48, p<.001$), 월수입이 '151-300만원', '301만원 이상'이 '150만원 이하'보다 환경안전실천이 높았으며, '301만원 이상'이 '151-300만원'보다 환경안전실천이 높았다($F=13.93, p<.001$). 결혼생활만족은 '만족함'이 '보통'과 '만족하지 않음'보다 환경안전실천이 높았다($F=7.67, p<.001$).

화재예방안전실천은 교육, 주거형태, 월수입, 건강상태, 결혼생활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육은 고졸이상이 중졸이하보다 화재예방안전실천이 높았으며($t=-1.94, p=.05$), 주거형태가 아파트가 단독주택보다 화재예방안전실천이 높았다($t=3.82, p<.001$). 월수입은 '301만원 이상'이 '150만원 이하'보다 화재예방안전실천이 높았으며($F=6.38, p<.001$), 건강상태가 '건강함'이 '건강하지 않음'보다 화재예방안전실천이 높았다($F=3.81, p=.02$). 결혼생활 만족도는 '만족함'이 '보통'과 '만족하지 않음'보다 화재예방안전실천이 높았다($F=8.21, p<.001$).

생활안전실천은 월수입, 건강상태, 결혼생활 만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월수입이 '301만원 이상'이 '150만원 이하'보다 안전실천이 높았다($F=5.41, p=.01$). 건강상태는 '건

강함'이 '보통'과 '건강하지 않음'보다 안전실천이 높았으며($F=7.64, p<.001$), 결혼생활 만족도는 '만족함'이 '보통'과 '만족하지 않음'보다 생활안전행동이 높았다($F=6.14, p<.001$).

시설안전실천은 월수입, 건강상태, 결혼생활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월수입은 '301만원 이상'이 '151-300만원'과 '150만원 이하'보다 시설안전실천이 높았다($F=4.43, p=.01$). 결혼생활 만족도는 '보통'과 '만족함'이 '만족하지 않음'보다 시설안전실천이 높았다($F=7.34, p<.001$).

3. 안전의식과 안전실천과의 관계

대상자의 안전의식과 안전실천과의 관계는 <Table 6>과 같다. 안전실천은 가정안전의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5, p<.001$). 즉, 가정안전의식이 높을수록 안전실천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Correlations between Safety Awareness and Safety Practice (N=138)

| Variables | Emergency Care Awareness r(p) | Traffic Safety Awareness r(p) | Fire Safety Awareness r(p) | Emergency Care Awareness r(p) |
|--------------------------|-------------------------------|-------------------------------|----------------------------|-------------------------------|
| Traffic Safety Awareness | .73(<.001) | | | |
| Fire Safety Awareness | .62(<.001) | .77(<.001) | | |
| Emergency Care Awareness | .62(<.001) | .74(<.001) | .85(<.001) | |
| Safety Practice Behavior | .35(<.001) | .50(<.001) | .39(<.001) | .39(<.001) |

교통안전의식($r=.39, p<.001$)과 화재안전($r=.50, p<.001$)의식도 안전실천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통안전의식과 화재안전의식이 높을수록 안전실천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처치안전의식도 안전실천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9, p<.001$). 즉, 응급처치안전의식이 높을수록 안전실천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의식과 안전실천과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안전실천을 종속변수로 하고 안전의식 하위영역 전체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변수들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을 하기 전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0.8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차한계와 variation inflation factor(VIF) 값을 이용하여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가 0.1이하거나 VIF의 값이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을 분석할 결과, 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1.077, p<.001$),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Adj. R^2)는 .227로 나타나 안전의식의 하위변수가 안전실천을 22.7% 설명하였다. 안전실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통안전의식($\beta=.48$)이었으며, 그 이외의 안전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7>.

<Table 7> Variables Influencing Safety Practice Behavior (N=138)

| Variables | B* | SE | β | t(p) |
|--------------------------|------|-----|---------|------------|
| Constant | 1.02 | .37 | | 2.79(.01) |
| Home Safety Awareness | -.03 | .13 | -.03 | -.24(.81) |
| Traffic Safety Awareness | .51 | .15 | .48 | 3.51(.001) |
| Fire Safety Awareness | -.04 | .15 | -.04 | -.26(.79) |
| Emergency Care Awareness | .09 | .15 | .09 | .61(.54) |

$R^2=.250, \text{Adj. } R^2=.227, F=11.077, p<.001$

SE=Standard error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V. 논의 및 제언

지금부터 도출된 연구결과로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경남 김해시와 창원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안전의식 정도는 전체 평균 4.10점(5점 만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교통안전의식(4.17점), 화재안전의식(4.11점), 응급처치안전의식(3.93점), 가정안전의식(3.84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광주지역 20-60대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한 Lee Hee-Taek(2010) 연구에서는 응급처치안전의식(3.72점), 가정안전의식(4.13.점), 교통안전의식(4.23점), 화재안전의식(4.27점) 순으로 안전의식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Park Sin-Young & Eo Yong-Sook(2015)의 창원지역 시민안전문화대학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안전의식 정도가 전체 평균 4.14점(5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화재안전의식(4.38점), 교통안전의식(4.28점), 응급처치안전의식(4.03점), 가정안전의식(4.00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Kim Sang-Youp(2015)의 연구는 광주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안전의식 정도의 전체 평균은 177.50점(43-215점 범위)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화재안전의식, 교통안전의식, 가정안전의식, 응급처치안전의식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대상자 모두는 일상생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가지는 안전에 대한 인지도인 안전의식 정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의식 하위요인별에서 1위와 2위를 보면 결혼이주여성에서는 교통안전의식과 화재안전의식으로, 일반성인에서는 응급처치안전의식과 가정안전의식으로, 시민안전문화대학 성인학습자와 대학생에서는 화재안전의식과 교통안전의식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성인들은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교통안전과 화재안전에 대한 안전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안전실천 정도는 전체 평균 3.23점(5점 만점)으로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안전의식 정도의 4.10점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안전실천(3.45점), 생활안전실천(3.41점), 시설안전실천(3.09점), 화재예방안전실천(3.00점) 순으로 잘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화재예방에 대한 이론과 체험이 병행된 교육내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작은 부주의로 인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화재예방에 대한 중요성과 일상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Kim Sang-Youp(2015), Park Sin-Young & Eo Yong-Sook(2015), Lee Hee-Taek(2010) 연구에서도 본 연구결과와 같이 안전실천의 정도가 보통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의식보다 안전실천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안전이라는 것은 안전에 대한 지식과 의식보다는 실천이 더 중요한데, 결혼이주여성이든, 대학생이든, 일반시민이든 상관없이 안전의식 정도에 비해 안전실천 정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의식 차이는 연령, 한국거주 기간, 출신국, 한국국적 유무, 월수입, 성질, 결혼생활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안전의식은 40세 이하, 한국거주 10년 이하, 한국국적 미취득, 월수입 150만원 이하, 보통의 성질, 보통의 결혼생활 만족도일 때,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출신국이 '기타 나라'인 경우가 '일본'에 비해 가정안전의식, 교통안전의식, 화재안전의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급처치안전의식에서는 '중국'과 '기타 나라'가 '일본'에 비해 응급처치안전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출신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 기타 나라보다 가정안전의식, 교통안전의식, 화재안전의식, 응급처치안전의식이 높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40세 이하, 한국거주 10년 이하, 한국국적 취득자들이 안전의식이 낮다고 나타났는데, 이 또한 1980년대부터 많이 입국했던 일본출신의 결혼이주여성보다는 최근에 한국으로 입국한 동남아 출신 등의 결혼이주여성들일 가능성 높다. 그 이유는 일본 등의 선진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들은 본국국적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동남아 등 후진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국적을 가능한 빨리 취득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해양국가의 특성상 지진과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로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재난발생에 따른 참혹한 현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안전의식이 다른 나라출신의 결혼이주여성들보다 높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안전의식 수준이 전체 평균 4.10점(5점 만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도 설문조사에 참여한 138명 중 75명(52.2%)이 일본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출신국과 관계없이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가정 내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을 비롯하여 가정안전의식, 교통안전의식, 화재안전의식을 강화시키는 안전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안전실천 차이는 주거형태, 월수입, 건강상태, 결혼생활 만족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아파트에 사는 경우, 월수입이 301만원 이상인 경우, 건강상태가 건강하다고 응답한 경우, 결혼생활이 만족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실천을 잘 하는 것을 나타냈다.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정이 사회취약계층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여건이 좋은 결혼이주여성들은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하면서 일상 속에서 안전을 잘 실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Park Sin-Young

& Eo Yong-Sook(2015)의 연구에서 성인학습자들의 안전생활실천은 성별, 학력, 직업유무, 주거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환경안전행동은 여성이, 화재예방안전행동은 대졸 이상인, 직업이 있는 경우가, 아파트에 사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단독주택 거주자보다는 아파트 거주자가 더 안전실천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파트화재는 대형화재로 확산될 경우,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평소 아파트 자체에서의 화재안전사고 대비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있을 수도 있고, 거주자들 자체가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경남 창원시와 김해시가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한국거주 10년 이하인 자, 월수입이 150만원 이하인 자, 주거환경이 열악한 자,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자, 후진국 출신인 자 등에 해당되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생활 내에서의 화재안전과 응급처치에 대한 안전교육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의 21.7%가 안전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안전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를 비롯한 유관기관 또는 평생교육기관에서는 교육요구 분석을 토대로 하여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이론과 체험이 병행된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경남 김해시와 창원시의 행정구역 '동'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데 한계점을 가진다. 또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안전의식과 안전실천을 살펴보기 위한 측정도구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선정되었기 때문에 안전의식과 안전실천 간의 설문문항 구성요소가 다름으로 인해 이들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안전의식과 안전실천의 설문문항 구성요소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한 도구개발을 토대로 하여 안전인식과 안전실천 간의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References

- Cha, Seung-Eun & Kim, Doo-Sub(2008). The Effect of Social Roles on Depression of Foreign Wives in Korea: Focused on the Difference among Japanese, Chinese and Vietnamese Wive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1(3), 131~157.
- Cheol, Kyu-Cheol(2011). A study on Police Activities for Preventing Crime victimization of foreign Immigrant Wives. *Autonomy Police Studies*, 4(1), 204~227.
- Cho, Jae-Dong(2015).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response of the police for multicultural families. *Kyungwoon University. Master's Thesis*.
- Diguiseppi, C. et al.(2012). Safety Practices in Relation to Home Ownership Among Urban Mexican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Community Health*, 37(1), 165~175.
- Hendrickson, S. G. · Williams, J. & Acee, T. W. (2008). Immigrant Hispanic mothers' participation in a dual-site safety intervention. *Hispanic Health Care International*, 6(2), 71~79.
- Hwang, Jung-Mee(2015). Reconsidering Domestic Violence Against Marriage-Migrant Women in Korea: from Vulnerability to Human Security. *Journal of Korean Women 's Studies*, 31(4), 1~39.
- Jeon, Mi-Soon · Kang, Ki-Jung & Park, Sung-Hee(2011). A Study on Pregnancy, Delivery, and Infant Rearing Knowledge and Educational Need of Marriage Immigrant Women.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 Community Health*, 36(3), 179~190.
- Jung, Eui-Chul(2013). International Marriage Women's health and communication: Focusing on the influences of migration and communication. *Health Communication Research*, 9, 77~111.

- Kim, Hye-Ja · Sim, Mi-Jung & Oh, Hyo-Sook(2012). The Knowledge of Menstruation, Attitude for Menstruation, and Knowledge of Contraception for Im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5), 307~314.
- Kim, Hye-Won(200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measuring Scale of Safety Conscioudness. Ewha Womans University.
- Kim, Sang-Youp(2015). Safety Awareness and Safety Practice Behavior of College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2), 279~289.
- Kim, Seung-Gwon et al.(2010). 2009 A National Multicultural Families Survey.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oh, Hye-Won et al. (2010). Employment assistance measures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Focused on language and cultural resources. KWDI · KRIVET
- Lee, Hee-Taek(2010). The Effects on Safety Life Practicing Behavior by Safety Conscioudness and Safety awareness. Daegu Haany University. Doctoral Thesis.
- Ministry of the Interior(2015). 2015 Present Condition of a local government. <http://www.moi.go.kr/>
- Nava, A. et al.(2014). Acculturation and Associated Effects on Abused Immigrant Women's Safety and Mental Functioning: Results of Entry Data for a 7-year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Immigrant & Minority Health*, 16(6), 1077~1084.
- Park, Hee-Ok · Park, Mee-Ra & Chun, Young-Mi(2015). A study on education needs related to prenatal care programs in married immigrant wo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7), 4632~4640.
- Park, Sin-Young(2014). The Study on the Learning Experience during the Employment Proces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A Grounded theory. Pusan National University. Doctorate Thesis.
- Park, Sin-Young & Eo, Yong-Sook(2015). A study on the Safety Awareness and Safety Practice Behavior of Adult Learners: Focusing on 「Civic Safety Culture College」 in Changwon City. *The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7(6), 1619~1627.
- Worick, W. W.(1975). Safety educa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Yoon, Young-Mi · Sung, Kyung-Suk & Kim, Eun-Joo(2014). Safety Conscioudness and Safety Practicing Behavior and Perception about Safety Management Service System of University Campus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Living Environmental System*, 21(6): 1033~1042.
- Yang, Y. M. et al.(2015). Health Empowerment Among Immigrant Women in Transnational Marriages in Taiwan.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47(2), 135~142.
- Yun, Ji-Yun(2013). In-home Safety Accid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and Mother's Emergency Treatment. Dong-A University. Master's Thesis.

-
- Received : 22 August, 2016
 - Revised : 05 September, 2016
 - Accepted : 13 September, 2016